

2014년 12월 1일 새벽말씀(편집본) /2005.6.13

오늘은 월요 단상입니다.

어제 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리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혼자는 이루게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면 이루게 해 주지만, 혼자는 안 해 준다. 왜 안 해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해 주실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법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같이 구하면 준다. 혼자 구하면 안 된다.”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이 뚜껑만 가져가고, 한 명은 컵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의논해서 둘이 돈 주고 사다가 같이 한 집에다 놓겠다고 하면 준다. 그러나 하나씩은 싫다. 하나씩은 안 된다. 하나씩은 병신 되니까 싫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건을 보더라도 옷 사러 가면 하나씩은 안 판다고 합니다. “윗도리 팔면 아랫도리는 안 팔리니까 싫다. 안 판다. 두 개 다 사가면 팔겠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원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돌을 사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는 안 팝니다. 두 개라면 팔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돈 주더라도 두 개를 사가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것은 밑돌하고 윗돌하고 붙어있습니다. 윗돌을 밑돌에 꽂아놓았습니다.”

“나는 윗돌만 사 가겠습니다. 나는 앞산에다 갖다가 심으면 되니까 밑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사 가세요.”

“저것은 맘에 안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밑돌을 사가면 윗돌도 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있습니다. 만일 윗돌만 살 것이면 밑돌 값까지 다 내야 됩니다. 두 돌이 딱 하나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개를 사 왔습니다. 월명동 돌 사올 때, 두 개를 사 가면 돌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사다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앞산의 흙에다 꽃으면 되니까 밀돌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밀돌도 세우면 똑같이 됩니다. 두 개가 비슷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세울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할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여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밀돌도 세운 돌만큼 값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운 것만큼은 못 받지만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하나는 얼마입니까?”

“하나 사가면 400만원을 주어도 나는 100만원 밀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면 300만원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밀돌은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니 밀돌을 갖다 세우지요.”

“구멍 뚫어놓은 것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안 된다. 너희들 둘이 합심해야 된다.”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는 존재를 못 하나? 개성의 존재체가 있는데.”

“하나는 안 된다. 둘이 해야 된다. 두 사람이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하나는 안 된다. 이번 주에는 모두 둘이 하나가 빨리 되도록 하라. 그러면 잘 된다.”

믿습니까?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 되라면 하나가 되어야지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극과 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되 동쪽 서쪽으로 각각 구하지 않고, 둘이 하나 되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자들도 같이 길러보면, 꼭 자기 성질대로 각각 놉니다. 그것을 내가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모사를 써서라도 기어코 옆에 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보내는 일을 합니다. 아주 이를 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 되고, 재미있게 지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한번 동물을 길러봤습니다.

양도 길러보고, 소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보고, 닭도 길러보고, 토끼도 길러봤습니다. 그런데 닭이 돼지 막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가끔 들어갑니다. 가면 잘못하면 물리니까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돼지가 닭을 보고 기어코 물려고 막 쫓아옵니다. 돼지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도 같은 가축인데 왜 싸우느냐? 물지 마.” 하며 돼지가 물려고 하면 때리고, 물려고 하면 때리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돼지가 내 말귀를 알아듣고 닭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물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내가 그 돼지에게 먹을 것을 더 주었습니다. 겨를 한 뒷박씩 주었는데 두 뒷박씩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면 나중에는 돼지 먹이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결국 그렇게 마음이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닭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돼지에게 해 주어도 자꾸 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돼지의 밥을 굶겼습니다. 밥을 안 주었습니다.

엄마가 “야, 돼지가 꺾꺾거리는데 밥 좀 주지, 안 주느냐?” 하기에 “주었습니다. 밥을 주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밥을 주었는데도 꺾꺾거리느냐?”

“줬어요.”

그렇게 밥을 굶기고서 좀 때렸습니다. “너는 맞아야 된다. 내가 닭띠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가축끼리 싸우느냐? 아무리 극과 극이지만 싸우지 마라.”

그렇게 동물도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사람도 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끼리도 서로 싸우는 것은 너무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부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고, 하나 되지 않을 일이 있어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아마 하나가 되면 몇 배 잘된다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왜? 몇 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팔자가 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팔자가 편다고 했으니 8배는 잘 되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8배도 더 되지. 한 1천 배 잘 된다고 하면 될까? 그리고 1천 배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잘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1천 배, 1만 배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다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크다!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나다.”

지옥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의 생각이 다 각각입니다. 전부 각각 놓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천국이 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것이 그렇게 좋다!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도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곳에 내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되는 곳에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가 안 되는 곳은 너무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을 갖고 금주는 반드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들과 하나 되고,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 하나 되어라. 하나 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 된 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자꾸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옆에 가 계십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은 곳은 주님이 옆에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와 동행’을 써 붙여놓고 있어도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곳에는 내가 강림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된 곳을 알겠지요?

어제도 비유로 말씀했지만, “병아리끼리는 하나가 잘 된다. 어미 닭과 하나 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병아리와 오리와 하나 되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와 거위가 거의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도 가 보면 각각 지냅니다.

거의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는 것 같아도 가보면 아닙니다. 속 다르고 겉 다릅니다.

같이 지내라!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분위기가 좋아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가서 풀고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묶였지만 요즘에 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살 때 한 방에 살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좋은데 가다보면 서로 약점도 있고, 게으르고, 누구는 또 심정 모른다고 서로 그러는데, “하나 되도록 하라. 하나 된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렇게 맨날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그렇게 안 하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형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화평케 지내면 그것이 더 큼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극적인 비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읽었어도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항상 행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모시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와 같이 동행하니까 주를 부르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야지, 나타났을 때부터 대화하려고 하면 못 보지요?

나를 만나면 대화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언제 봅니까? 언제보지요? “앞으로 보자.” 하는데, 그때는 그날이고 지금 당장은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해서 말하리라.”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날부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고, 마귀 아들은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지,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들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안 합니다. 주를 끼워 주지 않는데 왜 거기에 갑니까? 내 이름으로 모여야!!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야, 주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야 함께하겠다. 무슨 이름으로 모이느냐? 불고기 먹기 위해서 모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자리 만들어 놓았느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가서 하지.”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바쁘신 하나님이, 바쁘신 주님이 거기에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분위기 만들어놓고,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래? 그러면 내가 같이 말하리라.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하는 것은) 한 두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잘 되니까 평생 잘 될 때까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선생님이 뭐가 다른지, 그것 한 가지를 받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도우니까 평생 잘 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고, 평생 주님을 찾는 원인은 평생 나를 도와주니까 평생 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를 항상 평생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에 “너희들이 서로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함께하리라.”하셨습니다.

우리끼리는 모여 봤자 인간입니다. 여자끼리 모여 봤자 여자라니까요. 남자끼리 모여 봤자 남자입니다. 세상 사람끼리 모여 봤자 세상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천사입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가입해야 되고, 주님이 같이 가입하고, 같이 움직여야 그때서야 무슨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 있어도 이상세계를 이루고 기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천국을 만들고, 이성의 천국을 만들고, 환경의 천국을 만드는데 내가 환경의 천국을 만드는 사람을 쫓아다녀 보니까, 바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 천국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하늘을 모시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때뿐만 아니라, 늘 평소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 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 아침 희망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둘이 하나 되고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유럽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토닥거렸습니 다. 그때는 내가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둘이 토닥거리니까 심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느냐?” 하고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서로 토닥거리는데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사람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외국사람 방법이 다르다. 왜 한국사람은 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의 방법으로만 하느냐? 우리나라 방법으로도 같이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내가 같이 못 있는다.”

거기에 같이 갔다가는 둘 다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 식, 너는 네 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 된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너희들끼리 서로 하나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분위기가 좋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있느냐? 다 되지.” 할 것입니다.

평강과 의로 채워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고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항상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과 내재하심과 모성신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늘 이끌어 주시고, 나도 이들 손을 딱 잡고 계속 이끌어 줄 테니까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안 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 여기서 말씀 마쳤습니다.